

## < 19세기 미술의 대모험 - 시민과 미술 >

양정무 (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)

### 1. 프랑스 혁명과 미술 “고전주의-낭만주의”

(주요작품)

들라크루아. [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]. 1830

쇠라. [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]. 1884

윌리엄 터너. 비, 증기, 그리고 속도. 1844. (전함 테메레르. 1838)

#### 자크 루이 다비드

-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. 1784
- 소크라테스의 죽음. 1787 (피에르 페론. 소크라테스의 죽음. 1787)
- 사비나 여인의 중재. 1799
- 마라의 죽음. 1793 (비교: 장 조셉 위츠. 마라의 죽음. 1880)
- 서재에 있는 나폴레옹. 1812
- 에투알 개선문. 파리. 1806
-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. 1801 (폴 들라로슈. 나폴레옹. 1850)
-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. 1805-1807

#### 앵그르

- 왕좌에 앉은 나폴레옹 1세. 1806
- 오이디푸스와 스피르크스. 1808
- 목욕하는 여인. 1808
- 그랑드 오달리스크. 1819
  
- 호메로스의 예찬. 1827

#### 제리코

- 메두사 호의 뗏목. 1818-1819
- 도박에 빠진 여인. 1822
- 더비 경마. 1821

#### 들라크루아

- 쇼팽의 초상화. 1838
-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. 1827
- 키오스 섬의 학살. 1824